

大型波力發電裝置 特許

—美ロキード社 2Mw出力—

에너지源의 開發問題는 制限된
國家를 빼놓고 全世界가 國力を
기우리고 있거니와 요즘들어서는
波力發電이 새로운 電力資源으로
世人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.

이미 美ロキード 캘리포니아會社
는 2메가w級의 巨大한 波力發電
裝置發明創案에 美國特許를 取得
한事實이 밝혀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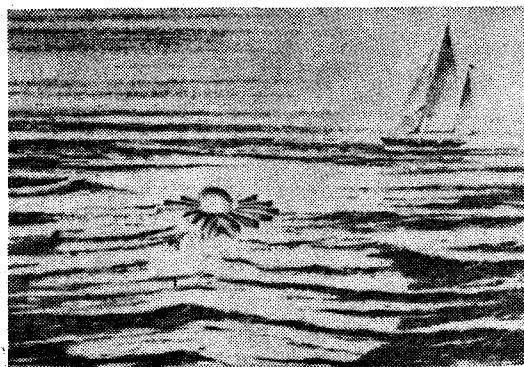
이제까지는 數10w짜리가 開發
되어 航路標識燈臺用電源으로 活
이 되고 있으나 거대한 발전장치
창안특허가 許與되기는 이번이
史上初有의 일이다.

멤 아틀(環礁)이라고 命名한
이 장치는 直徑 75m의 舟型狀 浮
遊構造物이며 머리를 海上에 露
出하게끔 設計되어 있다. 平均
10秒間隔으로 밀어 닦치는 波濤를
上部의 放射狀가이드벤을 통하여
中央取水口에 誘導된다.

이때의 海水는 높이 18m의 中
核構造內部를 加速落下함으로써
발전터빈을 回轉시키게 된다. 1
基의 最高出力은 2메가w까지 可
能한 計算이다.

현재까지 알려진 波力發電機는
波濤上下運動등으로 容器內에서
發生하는 風壓으로서 空氣터빈을
돌리는 方式에 의거하고 있다.

그러나 로키드에서 취득한 특
허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파력발
전장치는 海洋環境에의 影響度
評價結果 별다른 問題가 없는 것
으로 보고 있다.



特許된 波力發電裝置 「멤 아틀」의 構想圖

15分동안에 道路補修

—美企社, 速硬性材料開發—

美企特리會社는 高速道路등의
緊急補修用에 適合한 速硬性인스
턴트 補修材를 새로 開發하여 市
販中이다.

페스트 퍼치라고 불리는 이 보
수재는 元來 原子爐의 실링材로
서 개발한 合成物을 利用한 것이
며 그 속경성은 15分동안이므로
交通이 繁頻한 道路補修에 안성
맞춤이라고 한다.

使用效果는 아스팔트도로 또는
콘크리트도로에 생긴 龜裂이나
구멍을 메우는데 가장 적합하며
때운후 15분이 지나면 大型트럭
이 行走하게끔 硬化된다.

이 퍼스트 퍼치는 酸化鐵과 鐵
물드로마이트를 包含한 폴타르 混
合物이며 종래의 도로보수재에
比較하여 값이 비싼 것이 흠이다.

그러나 勞動力과 보수에 必要
한 機器原價가 節約되고 속경성
이기 때문에 보수중의 交通滯症
이 避해지며 耐久性이 좋아 高價
를 相殺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.

또한 使用方法은 도로의 破損

場所에 簡單히 물과 섞어서 시멘
트와 같은 方法으로 塗布하면 오
하려 周邊의 鋪裝보다 強度가 높
다는 長點이 있다고 한다.

두께 1.79mm 팔뚝時計

—세이코서 超薄型 9月市販—

두께 1.79mm의 超簿型水晶發
振式 手錶時計가 日本服部時計店
세이코에 의하여 9月부터 선을
보이게 되었다.

服部가 發表한 이 시계는 스위
스의 론진이 1.98mm 水晶式時計
를 商品化하는 한편 1.40mm 짜
리도 이미 試作에 成功하였으므
로 그리 警異的인 消息은 아니나
現行時計로는 가장 瘦은 두께의
시계가 되는 셈이다.

세이코가 상품화한 1.79mm超
薄型時計는 「세이코 퀴츠 디지탈
F 421」과 「세이코 퀴츠 9320(아
나로그式)」의 2種類이다. 앞으로
同社는 디지탈 機種으로 두께 1.38
mm 짜리도 構想하고 있어 계속
하여 론진과 競争을 벌이자는 心
算인 듯하다.